



오늘의 말씀 - 금 (출 3:1-12)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다

3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본문 이해

모세가 양 떼를 인도하여 호렙에 이르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가 그 광경을 보려고 돌이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적용

모세의 양치기 세월 40년은 참으로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꿈도 희망도 다 포기한 채,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삶으로 전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아직도 그에게는 경이로움을 보고 놀랄 줄 아는 감성과, 그것을 보고 질문할 줄 아는 이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산불이 날 정도라면 불을 끄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쳐 버리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놀라고, 질문하며 다가갔습니다. 모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영적 호기심과 질문이 살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황량한 광야와, 그 지루한 세월들이 모세의 가슴에 살아있는 불을 끄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속의 그 불을 보시며,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모세의 양치기 40년이 꼭 필요하다 여기셨던 게지요. 노예의 무리인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내서 한 민족으로 결집시키고, 그들을 율법으로 교육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는 40년이 결코 긴 세월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누구이기에” 하며 영똥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했고, 애굽 사람들의 학대도 하나님이 다 보셔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데도 모세는 애굽의 바로 앞에 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현재의 약속과 장래의 약속입니다. 완전한 훈련, 완전한 준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현재의 약속과, 앞으로 언젠가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온다는 장래의 약속 붙잡고, 부족한 그대로 나아갈 뿐입니다.

기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를 잘 살피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무슨 뜻인지, 왜 그런지, 묻고 생각하며 가슴의 불을 지피게 하옵소서.

인생 광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훈련장이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아가페회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힘을 더하여주옵소서.

(내일 말씀: 출 3:13-22)